

인문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주요 추진 내용 설명회

2017. 1.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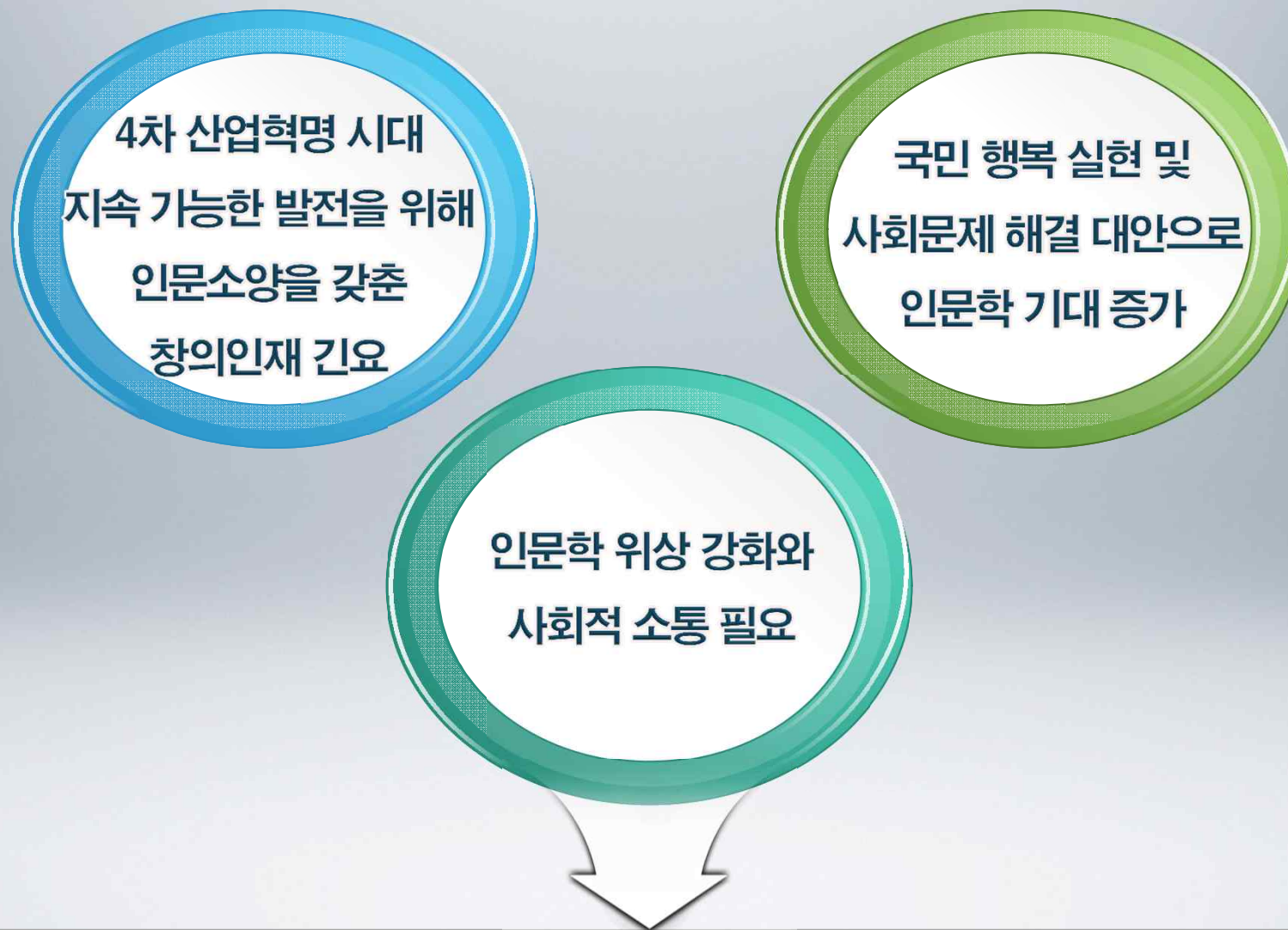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2. 정책 목표 및 비전
3. 주요 내용
4. 향후 일정



1. 추진 배경



1. 추진 배경



인문학 기본법('16.8.4.) 제정에 따른 총체적인 발전 방향 수립 필요

'인문계라 죄송'① 인문학, 위기와 열풍 사이

송고시간 | 2016/01/10 13:30



인문계 둘 중 하나 "취업 못해" ...'문송'·'인구론' 신조어까지

대학 바깥에선 '인문학 열풍' 아이러니...인문학 도서강자와 인기

<※ 편집자 주 = '문송합니다(문과라 죄송합니다), '인구론(인문계 졸업생의 90%가 논다)과 같은 신조어의 출현은 우리 사회의 '인문계 기피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인문학 도서와 강사가 큰 인기를 끌며 '인문학 열풍'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문학이 이중적 상황에 놓인 원인과 인문학의 진정한 부흥을 위한 대책을 짚어 두 꼭지로 나눠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수년 전부터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날로 심해지는 취업난 속에서 졸업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학문이 인기를 끌고 어찌 보면 '똥구름 잡기'처럼 들리는 인문학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기 때문이다.

◇ 각박해지는 사회 속 부는 인문학 열풍

아이러니하게도 학교 안에서 인문학이 외면받는 사이 학교 밖에서는 반대로 인문학 열풍이 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집계한 2015년 이용도서 순위를 보면 '미움받을 용기',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법' 등 인문학 도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출판가에서는 인문학 서적이 큰 인기를 얻자 인문학이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개론서를 연달아 출간하기도 했다.

네이버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인문학 강연 시리즈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은 2014년 1월 '주제강연'·지난해 2월 '고전 강연'을 개설한 후 지난해 9월까지 누적 강연 동영상 재생 횟수가 100만회를 넘어섰다.

대학가나 기업·기관에서도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인재 양성 및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육군사관학교는 지난해 3월부터 인문 교양을 함양할 고전 목록을 정하고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모두 64권을 읽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상경계열 전공자를 주로 뽑는 한국은행은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을 위한 논술시험에서 '빅 아이(Big I)와 스몰 위(Small We)'라는 인문학적 주제를 출제했다.

한은은 2013년 승진시험에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반서구주의)의 차이를 논하고 세계교역의 확대가 세계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쓰라'는 문제를 내기도 했다.

신정근 성균관대 유학대학장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생각을 이어가려면 생각의 자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때 생각의 자원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인문학"이라고 현대사회에 부는 인문학 바람을 설명했다.

정부, 생애주기 맞춤형 인문학 진흥 나선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입력 : 2017.01.12 17:54:02

정부가 올해부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여는 한국형 '문화수도' 사업을 육성한다. 인문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도 모색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문학인문정신문화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인문교육을 해 모든 국민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중등학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이 시작되는 올해부터 국어 시간에 '매 학기 책 한 권 읽기', '고전 읽기' 등 과목별 인문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체험활동도 강화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역사교사 연구발표회를 참관해보니 전문성 있는 수업 자료가 많았다"며 "편향된 시각을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자 인권 자료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에서는 모든 계열 대학생이 인문강좌 필수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인문한국(HK)연구소 일부를 지역인문학센터로 지정해 중장년층과 노년층 등 연령별 인문교육과 소외계층의 자립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실시한다.

인문학 연구자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대학 인문역량강화(CORE) 사업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만든 인문교육 우수 모델을 확산시킨다. 박사 후 연구원의 경우 학위취득 후 취업이 어렵지 않도록 대학과 공공립 연구기관에서의 연수 기회를 늘린다.

문학·역사학철학 같은 기초연구 지원과 함께 아랍어·그리스어 등 소외분야 지원을 늘린다. 연구 분야별 특성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중장기 연구지원도 신설한다. 이전에 1~3년 이내에서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3~6년은 연간 2000만원, 7년은 연 1000만원으로 개편한다.

인문학 아젠다 발굴 위원회 등 국가전략 과제도 발굴하고, 기존 문화지식을 활용한 사업화 모델도 확산한다. 전자문화지도나 향토문화대전을 대학이나 기업들이 가공해 관광상품, 내비게이션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문체부 출연관련기관 자료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인문학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인문자산 원스톱 종합 포털'도 구축한다.

2. 정책목표 및 비전



2. 정책 목표 및 비전

비 전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목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
인문 진흥 및 사회적 확산**

추진전략

**생애주기별 체계적 ·
연속적 인문교육**

**인문학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다양화 등 지원**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

**종합평가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행 · 재정적 기반 구축**

3. 주요 내용



3. 주요 내용 (1/5)

I. 생애주기별 체계적 · 연속적 인문교육	II. 인문학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다양화 등 지원	III.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	IV. 행 · 재정적 기반 구축
---	---	---	--------------------------------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4대 중점 추진 과제

3.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주요내용

I. 생애주기별 체계적 · 연속적 인문교육

초 · 중등 인문소양교육

- ✓ 인문소양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 편성 운영
※ 2015 개정 교육과정 순차적 적용
- ✓ 체험 활동 중심의 자발적
인문 활동 활성화

모든 대학생 대상 인문교양교육 강화

- ✓ 인문교양 강좌 질 제고
및 체제 구축
- ✓ 대학 특성에 맞는 우수
기초인문 교육 모델
창출 확산

평생교육 및 소외계층 인문교육

- ✓ 지역인문학센터를
거점으로 연령별
맞춤형 인문교육
- ✓ 소외계층 대상
희망의 인문학 추진

**초등학교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인문교육 확대**

중점과제1. 초 · 중등 인문소양교육 체계화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을 통한 인문소양 교육

✓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통한 인문소양교육



- 국어, 사회, 예술 등 교과에 다양한 인문소양교육 내용 반영(교과연극과목 신설, 초등고전읽기신설등)

✓ 인문소양 교육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인문소양교육 관련 수업 모델 개발 및 활성화

체험활동 중심의 자발적 인문 활동 활성화

-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학교 내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 ✓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강화
- ✓ 학생인문학 동아리 등 자기주도적 인문학 학습지원 강화

인문소양교육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 ✓ 현장지원단 운영 및 교원 연수를 통해 학교 및 교원의 인문소양교육 지원
- ✓ 지역 인문학센터, 초중등인문소양교육센터, 지역 대학,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한 인문소양 교육 지원 강화

**교과학습,
체험활동을 통한
인문소양 증진**

중점과제2. 모든 대학생 대상 인문교양교육 강화

우수한 인문교양 강좌 질 제고 및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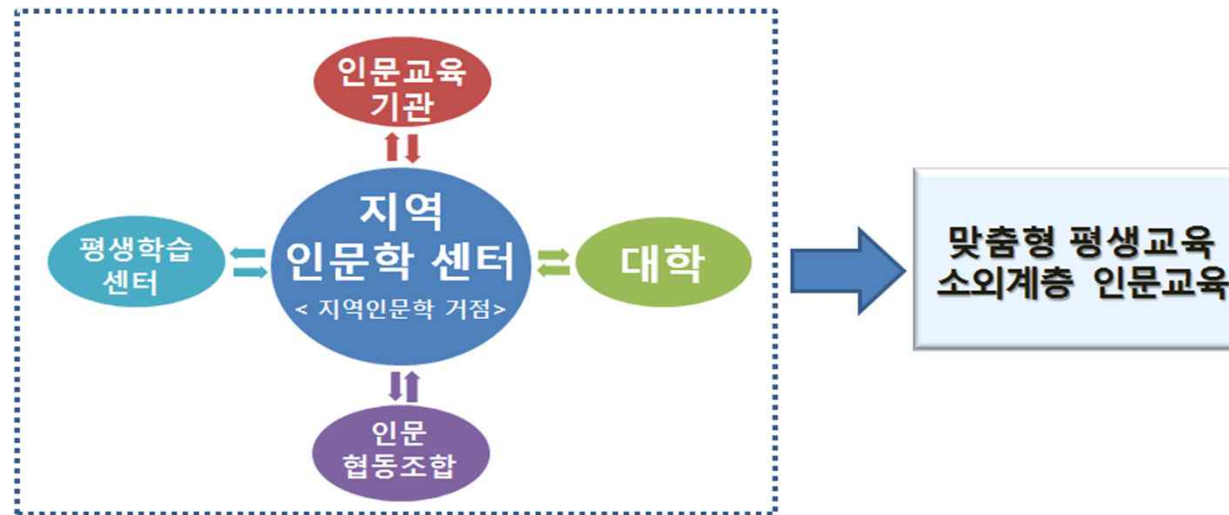
- ✓ 교양교육 지원 체계 구축
 - 대학별 컨설팅 실시 및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수업모델, 교수학습법 발굴 지원
- ✓ 전 계열 학생의 인문강좌 수강을 위한 지원 강화

우수한 기초인문 교육 모델 창출 확산

- ✓ CORE사업 등을 통해 대학특성에 맞는 우수 기초 교양 모델 창출 확산
 - 문학, 철학, 역사 등 인문학 기초 교양교과를 개발 운영하고 공대 등 타 계열 전공 학생 대상 인문학 강좌 확산
 - 대학 간 인문학 강의 상호교환 및 대학간 연합 모델 확산 유도

**이공계를 비롯한
모든 대학생의
기초인문소양
증진**

중점과제3. 평생교육기관 및 소외계층 인문교육 확대



- ✓ HK연구소 중 일부를 '지역인문학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및 소외계층 대상 인문교육 실시
 - 지역인문학 센터는 인문학 교육전문인력풀을 구축하고 평생학습센터*, 「인문학진흥법」 제9조에 따른 인문교육기관**, 협동조합 등에 제공
- ✓ 중장년·노년층 등 연령별 맞춤형 인문교육, 소외계층에게는 사회적 자립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추진

3.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주요내용

II. 인문학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다양화 등 지원

인문학 후속세대 교육 · 연구 안정적 지원


- ✓ 학부·석사과정 : 대학특성에 따른 자율적 교육모델 창출
- ✓ 석·박사 과정생 : 장학금 및 독립적인 연구비 지원 확대
- ✓ 박사후 과정생 : 연수 및 연구비 지속 지원

인문학자의 연구 지원 내실화

- ✓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및 중장기 연구 지원
 - ※ 연구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견연구자 대상으로 최대 7년(기존 3년)까지 지원
- ✓ 국가 전략 분야 및 융·복합연구 지원 체계화
 - 인문학 아젠다 발굴위원회를 통한 아젠다 발굴

인문학 연구거점으로서 HK연구소 육성

- ✓ 연구주체 및 운영방식 다양화



인문학 후속세대,
인문학자
연구 지원 내실화

중점과제4. 인문학 후속세대 교육 · 연구 안정적 지원

[학부-석사과정] 대학의 자율적 교육모델 지속 지원

- ✓ (1단계) CORE사업을 통해 대학 특성에 따른 자율적 모델 창출
 - (A대) 옥스퍼드대 (PPE; Philosophy, Politics & Economics)를 활용하여 철학과 정치 경제학을 연계한 자체 융합 모델 마련
- ✓ (2단계) 창출된 우수 모델을 각 대학에 확산, 정착 시킬 수 있도록 지원

[석박사과정생] 장학금 및 독립적인 연구비 지원 확대

- ✓ (석박사과정생) BK21플러스, CORE 등 장학금 중심 지원 유지
- ✓ (박사과정생)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연구비 지원 확대

[박사후연구원] 연수 및 연구비 지원 지속

- ✓ 학위 취득 후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에서의 연수기회 확대
- ✓ 학술 연구교수 지원확대로 전임급 연구원 직전단계의 일자리 대체 지원

**인문학
후속세대의
안정적 성장**

중점과제5. 인문학자 연구 지원 내실화

기초 연구 지원 확대 및 중장기 연구 지원 신설

- ✓ 문학, 역사, 철학 등 기초 인문학 중점 육성
- ✓ 연구 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 장기연구는 연구비는 소액(연 10백만원 이내)으로 하되 7년까지 지원
 - 중기연구는 기 수행한 연구를 심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최대3년까지 후속연구 추가 지원
- ✓ 인문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희랍어, 아프리카 연구 등 소외분야 지속 지원

국가 전략 분야 및 융복합 연구 지원 체계화

- ✓ 인문학 아젠다 발굴위원회를 통해 국가 전략 아젠다 발굴 체계 확립
- ✓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 기반의 사업화 모델 창출 확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 확대

- ✓ 미국, 중국 중심의 공동연구에서 유럽 등으로 연구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주요국 인문 사회 연구 기관과 연계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지원**

중점과제5. 인문학자 연구 지원 내실화

인문학 DB 확충 등을 위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 지원

- ✓ 인문자산 원스톱 포털 서비스 구축
 - (1단계) 교육부, 문체부 소관 출연·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인문학 연구 성과 정보 탑재
 - (2단계) 우리나라 전체 디지털 인문학 자료 집대성
- ✓ 기초사전, 동서양 고전 문헌 등 디지털화 추진

연구 몰입도 제고를 위한 연구자 친화적 환경 조성

- ✓ 연구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차점검 폐지(보고서 제출로 대체) 등 평가 간소화
- ✓ 정량평가와 질적평가 동시 시행 등 평가 체계 개선
- ✓ 연구 기여도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 현실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지원**

중점과제6. 인문학 교육연구 거점으로서 HK연구소 육성

HK('07~'16)			사업 개편('17~)		
유형 다양화	Bottom-Up 선정방식	인문분야	Bottom-Up 선정방식	인문기초 학문분야	소외. 보호/ 창의. 도전분야
		해외지역분야(일방향)		해외지역분야(쌍방향)	
신설	—	—	Top-Down 선정방식	국가전략 · 융복합 분야	

연구 주제 및 운영 방식 다양화

- ✓ (연구주제) 문·사·철 등 기초인문분야 연구소의 안정적 육성 및 소외. 보호 분야, 창의. 도전적 연구, 해외 우수 연구소와 쌍방향 교류 모델 신설 지원
- ✓ (운영방식) Top-Down 선정방식과 Bottom-Up 선정방식 병행
- ✓ 국가전략적 아젠다 등 특정주제에 대해 타 연구소 소속 연구자가 함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3.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

III.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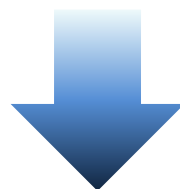
국내 인문학 대중화 기반 마련

- ✓ 인문도시를 "인문역사문화도시"로 브랜드화
- ✓ 온오프라인 인문학 강좌 활성화
- ✓ 중앙행정기관 행사와 지자체 행사 간 연계 추진

※ (예시) 교육부 '인문주간' + 문체부 '문화의 달' 행사

인문학 성과의 글로벌 확산

- ✓ 글로벌 인문학 전문가 양성 및 해외거점 마련
- ✓ 해외거점을 중심으로 인문학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 ✓ 세계 인문학포럼 국제적 위상 제고



인문학 대중화 확산

중점과제7. 국내 인문학 대중화 기반 마련

인문도시를 지역의 인문학적 역사문화도시로 브랜드화

- ✓ 17년 부터 “유럽 문화수도” 와 같이 지역의 인문학적 역사·문화 등을 바탕으로 ‘인문역사문화도시’ 로 개편
- ✓ 지자체, 사단법인(예: 통영 박경리 기념관) 등과 대학이 연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원 개수는 줄이고 지원액은 상향 조정
- ✓ 지자체 인문자산 및 지역 인프라 활용을 통한 지역 행사 등 프로그램 다양화

전담기관을 통한 온오프라인 강좌 활성화

- ✓ 기존의 오프라인 강좌중심에서 온·오프라인 투-트랙(two-track) 방식의 맞춤형 강좌 개발
- ✓ (오프라인 강좌) 청중의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맞춤형 현장 강좌 보급
- ✓ (온라인 인문강좌 신설) K-MOOC등을 활용, 우수 인문강좌를 일반인에게 제공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 ✓ 중앙행정기관의 행사*와 전국의 인문도시(지자체) 연계를 통한 다양한 인문 체험 문화 행사 추진
- * (예시) 교육부 인문주간(Humanities Week),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의 달 행사”

국내 인문학 대중화 확산

중점과제8. 인문학 성과의 글로벌 확산 기반 마련

글로벌 인문학 전문가 양성 및 해외거점 마련

- ✓ 언어, 역사, 문화에 정통한 글로벌 지역 전문가 육성
 - (A대) 중남미, EU, 러시아/중앙아시아 등 세계 6개 권역 특성에 따른 지역 맞춤형 교육 과정 구축 및 8개 지역연구소가 참여하여 교과과정 협의
- ✓ 인문한국(HK) 개편시 해외기관교류 유형을 신설하여 세계 각 지역 우수연구소와 동 연구 확대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인문학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 ✓ 국내 우수 연구 성과물, 우수저서 및 학술지 요약문 번역지원
- ✓ 우수 논문의 국내 학술지 게재 유도를 통해 국내 학술지 위상 강화

세계 인문학포럼 국제적 위상 제고

- ✓ 스위스 다보스 포럼*과 같이 범국가적 이슈를 공유하는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
 - 접근성이 좋고, 인문학적 자산이 많은 국내도시를 선정하여 “세계 인문학 포럼 도시”로 집중 브랜드화 하는 방안 모색
 - 유네스코 및 각국의 인문학진흥기관*과 상시 공동 협력 체제 구축하여 다양한 국가의 우수한 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국내 인문학 성과의 글로벌 확산

3.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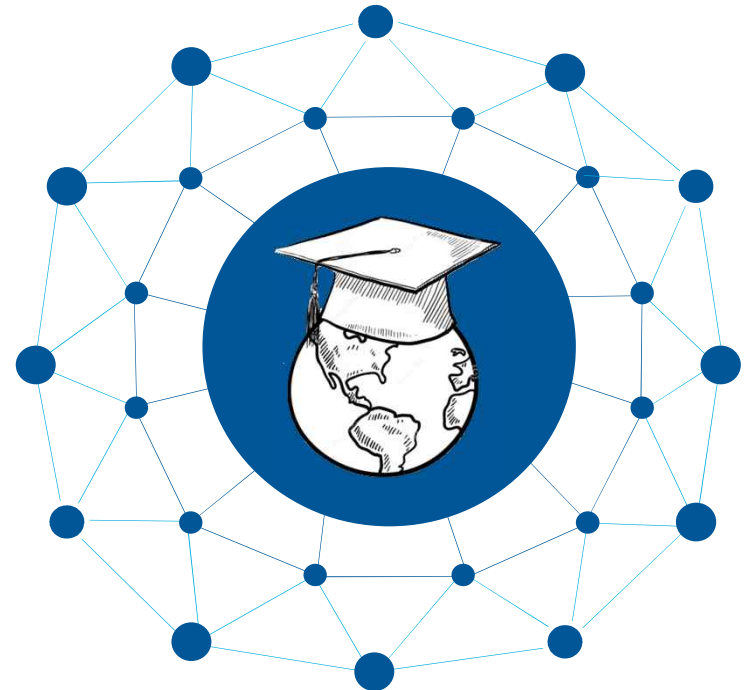
IV.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기반 구축

범정부 협업 강화 및 인문학 진흥 전담 조직 운영

- ✓ (범정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운영으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의제·담론 및 협업과제 발굴
- ✓ (관계부처) 교육부·문체부 간 협업으로 인프라 공동 활용
 - (예시) 인문주간 연계 지원,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 ✓ 인문학 전담기관을 허브로 인문학 관련 국내외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안정적 인문학 진흥을 위한 법재정적 기반확보

- ✓ 관련 법령 제개정
- ✓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중점과제9. 범정부 협업 강화 및 인문학 진흥 전담 조직

범정부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 강화

-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운영으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의제·담론 및 협업과제 발굴·시행
- ✓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인 문체부와 협업하여 인문주간 연계 프로그램 지원,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추진

인문학 진흥 전담 조직 운영

- ✓ 17년부터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을 허브로 인문학 관련 국내·외 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 * (국내) 대한민국학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등
 - (국외) 미국 NEH, 영국 예술인문연구위원회(AHRC), 프랑스 인문사회과학연구소(INSHS) 등
- ✓ 인문학 관련 연구, 정책 조사 및 중장기 홍보 전략 수립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

중점과제10. 안정적 인문학 진흥을 위한 법재정적 기반 확보

인문학 진흥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중장기 과제)

- ✓ 기초 인문학 연구를 지원·육성하여 국가 인문학 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법령 제정 추진
- ✓ 우수한 인문 인력을 육성하여 국가 인문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 도모하는 법령 제정 추진

인문학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장기 과제)

-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마련 검토(2차 인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 ※ [사례] 영국 예술·인문연구위원회(AHRC) 예산 약 1,815억 원('13)미국 국립인문재단(NEH)의 기금운영 및 사업 지원 정부 예산 약 1,580억 원('13)

3. 향후 일정



4. 향후 추진일정

2017년도 인문학 진흥 시행계획 취합 : 2017.2.17.

2017년도 인문학 진흥 시행계획 심의 및 통보 :
2017.3.31.까지

Q&A



감사합니다.

